



한국의 정보산업 발전과 함께 한 「한국후지쯔」

정보화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생소하게만 여겨지던 지난 1974년 한국후지쯔는 화콤코리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일본 후지쯔의 해외자회사 중 일곱번째로 설립되었다. 「첨단기술의 서비스제공을 통한 한국정보산업에의 기여」라는 경영이념과 「고객제일주의를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을 경영기본으로 삼아온 한국후지쯔는 한국의 정보산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정보산업에의 기여

1967년 국내최초로 한국생산성본부에 FACOM 222를 납입한 이후 탄생한 화콤코리아(현, 한국후지쯔의 전신)는 설립시부터 컴퓨터 이용기술과 베이직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을 비롯해 특히, 국내 최초의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의 개발, 한국어정보처리 시스템의 개발, 최첨단 인공지능 분야인 일한·한일 기계번역시스템의 개발 등 우리나라 정보산업발달사에 기록될만한 선구적인 기술개발을 이룩하였다.

또한, 한국후지쯔가 개발하여 국내에 접목시킨 첨단 정보처리기술들은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과 무역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왔다.

지난 '98년 후지쯔 본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은 4,000억원을 넘어섰고, '99년도에는 File장치(CD-ROM 등)와 통신기기를 포함해 약 5,000억원을 수입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6,500억원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후지쯔가 1983년에 설립한 자회사 「FKL동화」는 정보통신기기용 정밀부품 제조기술을 후지쯔 본사로부터 도입하여 국내기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92년에는 '5,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 '98년에는 약 9,0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후지쯔는 창립시부터 후지쯔의 메인프레임 OS를 개발하기 시작,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고 년간 40~6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해 무역수지에 기여함은 물론, 이곳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인력들이 현재 국내의 정보산업계의 여러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후지쯔 본사에 수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IPO사업의 적극적인 전개도 한국후지쯔가 국내 정보산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중점사업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기여 외에도 과거 국내 기업에 PC와 전자교환기 제조기술을 이전한 것을 비롯, 태일정밀에는 MR헤드 제조와 기술을 이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발전에 기여해 왔다.

25년의 한국후지쯔

이제 한국의 정보산업은 네트워크컴퓨팅시대라는 정보화 혁명기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혁기에 발맞추어 한국후지쯔는 기술이전을 통한 고급정보통신인력의 양성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수출, 자회사 FKL동화를 비롯해 IPO 사업을 통한 부품생산/수출, 채널사업의 확대, 유통·SW개발·시스템유지/보수 등 전문특화부문의 자회사 설립 등 항상 새로운 가치창조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한국후지쯔는 하드웨어 업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전문 솔루션을 기반으로 "System & Service업체"로 대변신중이다.

슈퍼컴퓨터에서 노트북PC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 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한국후지쯔는 현재 1990년대 후반과 21세기를 대비해 보다 개방적이면서 확장성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 시스템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협력회사를 통한 간접판매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판매실적



최고의 안전성을 지닌 데스크탑 대체용 모바일 E300 Series

을 대폭 늘려 '99년도까지는 최소한 제품별 국내시장의 1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의 강화

국내 시장은 80년대까지의 메인프레임 시대, 9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다운사이징화/Open Computing화에서 최근 인터넷/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컴퓨팅화에 이르기까지 경영환경 및 IT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소프트웨어/서비스 비즈니스 지향으로 점차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한국후지쯔도 지난 1992년 종합서비스상품 발표에 이어 과거 메인프레임 시스템공급자에서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시한 SI사업자로서의 변신을 꾀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자랑하는 한국후지쯔는 포항제철, 롯데백화점, 한솔PCS등에게 최상의 시스템구축을 제공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지금은 제조, 공공, 유통, 금융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SI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및 해외의 우수한 솔루션과 IT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업체와의 Joint Business를 강화하여 후지쯔 제품만을 고집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SI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제 90년대 후반 네트워크컴퓨팅시대에 들어와서 한국후지쯔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EC솔루션, 인터넷/인트라넷,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관리, CRM 등 다양한 요소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SOLUTIONVISIO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결합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토탈솔루션을 7가 지나 발표 했고, SI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경영컨설팅 및 ISP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후지쯔는 이러한 솔루션/서비스사업, 즉 솔루션비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수한 솔루션확보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후지쯔는 SW와 서비스분야의 강력한 체제를 구축, 진정한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밖에 1974년 창립시부터 후지쯔의 메인프레임 OS를 개발하기 시작,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연 한국후지쯔는 한국어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국내 최초의 한국어 COBOL개발, 일한/한일번역시스템 등 축적된 소프트웨어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PC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판매해 왔다.

한국후지쯔, 전문 토탈솔루션 업체로 재거듭나다

지금까지 일본후지쯔에 연간 40~6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해 온 한국후지쯔는 10월 20일 일본 마쿠하리에 지점을 설립했다. 이렇게 지점을 설립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단순한 OS개발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

본후지쯔의 SI프로젝트 개발업무를 중심으로 한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후지쯔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고객들이 대외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객사의 경영과제 해결과 고객이 원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To be 제안」형의 선도적 활동으로 관련 컨설팅에서 전략수립, 정보시스템 설계·구축, 운용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제, 한국후지쯔는 한국의 정보통신 시장에서 노트북PC에서 부터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는 일기에 보를 담당하는 슈퍼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의 기업, 어떤 형태의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Full Line-up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진정한 토탈솔루션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